

입법전쟁 시작... 여야 전열정비

민주, 남북경협특위 신설·공수처 설치 등 하반기 설계 한국당, 부동산 정책·靑 인사 개입 논란 등 정부 때리기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국회를 정상화한 여야는 본격적인 경쟁을 앞둔 11일 전열을 다그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평화 3개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워 입법 드라이브를 걸 데세다. 추미애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이제 우리는 속도와 성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에 전념할 때"라면서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에 민생, 평화, 개혁국회의 의미가 부여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야 모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랄 것"이라면서 "정부의 국정과제들이 국민께 선사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국회 '남북경협특위 신설'을 관철한 데 이어 후속 실무협상을 통해 남북경협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민주당은 자당 위원을 맡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완수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선거법 개정 문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민생 차원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미세먼지저감법·양성평등기본법·규제혁신 5법 등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도 서두를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의 경제·조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집중하며 전열 정비에 나섰다. 한국당은 특정이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런저런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파고드는 동시에 청와대 인사개입 논란도 건드렸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며 임금을 크게 올렸지만 정작 성장은 둔화하고 서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근로자가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야지, 소득주도성장엔 열매를 임금에 올리는 데만 급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언급, "오랜 기간 집 한 채만 가진 거주자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까지 증과세하는 것은 부자증세라는 목표를 벗어난,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심각한 조세저항 우려까지 있다"고 했다. 합진규 정책위의장은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내리꽂기 위해 적임자를 탈락시키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모든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의 논리를 앞세워 국민연금을 쌘짓돈처럼 쓰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신보라 의원은 여성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 "탁월한 청와대 행정관에 이어 송 장관까지 왜곡된 성 의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인사 실책을 인정하고 이들을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이제 상임위원장 쟁탈전

선수·나이따라 배분... 3선 의원들 경쟁 치열

제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된 후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 윤곽이 이미 드러난 가운데 11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조짐이다. 전남 여야는 18석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민주당 8석, 한국당 7석, 바른미래당 2석,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1석으로 협상을 완료했다. 민주당-여당은 관행에 따라 선수(選數)와 나이를 고려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눌 방침이다. 4선의 최재성·안민석 의원과 3선의 노웅래·민병두·안규백·정성호·이준석 의원 순으로 위원장을 맡을 차례인데, 재선의 인제근·전혜숙 등 여성 의원들이 일부 위원장을 차지할 수도 있다. 당 안팎에서는 정무위원장에 노웅래·민병두 의원을 거론한다. 노 의원은 방송기자 출신이라는 전문성을 고려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기재위원장은 최재성 의원, 국방위원장은 안규백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안민석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의원은 행정안전위원장 물망에 오른다. 이 중 최재성·안민석 의원의 경우 8·25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의원들은 여성가족위원장이 아닌 다른 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통상 위원장을 맡는 3선 의원이 당내 20명에 달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법사위원장은 판사 출신 3선으로 이상규·홍일표 의원이 거론된다. 국토위원장은 강석호·박순자·안상수·홍문표 의원의 이름이 나온다. 또 예결위원장은 김광림·김학용·홍문표·황영철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 외교통상위원장은 김세연·강석호·윤상현·황영철 의원 등이 거론되며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영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이종구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인기 있는 상임위의 경우 조정이 안 되면 경선으로 갈 가능성도 있으나 환노위원장은 거론되는 인사가 없는 상태이다. ◇기타 야당=바른미래당 류의 상임위원장은 교육위원장과 정보위원장 두 자리로, 3선의 이학재·이혜훈·이찬열 의원 모두 겸임 상임위원 정보위원회보다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희망하고 있어 경선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재선의 황주홍 의원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지 못했지만, 향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가져가기로 한 정의당은 전반기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지낸 3선의 심상정 의원이 유력하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최경환 당권 도전... 평화당 전대 정동영·유성엽과 3파전

박지원·천정배 전면 지원 광주·전남 결집 '새바람' 기대 전북 표심 분산... 판세 혼전

'DJ의 마지막 비서관'인 최경환 민주당 의원들이 11일 당권 도전 선언에 나섰다. 이로써 민주당 당권 경쟁 구도는 전북의 정동영·유성엽 의원과 광주 최경환 의원의 3자구도로 형성된 가운데 전반적인 판세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시대는 변화와 새로운 인물을 원하고 있으며 호남의 뉴 리더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최 의원은 이어 "평화당은 평화개혁세력의 중심축으로서 호남 정치를 이끌고 촛불혁명을 완수해야 한다. 당을 살리기 위해 최경환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40대 기수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꾼 김대중 정신, 초·재선 시절 정치개혁을 주장했던 천정배·정동영 선배의 기개, 박지원 의원의 정치력에 이어 최경환이 강한 대표가 돼 국민·당원 여러분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정치권에 새 인물들이 본격 등장하고 있다. 호남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며 "평화당과 호남은 뉴 리더로 승부해야 총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대표 당선시 당을 즉각적



민주당 최경환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 총선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권 도전 의사를 보였던 이용주 의원(여수 갑)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고, 운영의 의원(해남·완도·진도)도 광주·전남 표 분산 등을 고려해 이번 전대 출마를 접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윤 의원이 전대 출마를 강행한다면 지역 내에서 강한 역풍이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화당 당권 구도는 정동영·

유성엽·최경환 3자구도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판세는 혼전 양상이다. 당초 정동영 의원의 우세가 점쳐졌으나 당원투표와 여론조사(전체 결과의 10%)에서 1인 2표제가 도입되면서 판세가 복잡해졌다. 여기에 정동영·유성엽 의원이 경쟁구도를 펼치면서 전북 표심의 분산 가능성도 크다. 반면 최경환 의원은 광주의 천정배 의원과 전남의 박지원 의원이 전면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광주·전남 표심 결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최경환·유성엽 의원이 각자의 지역에서 상호 지원하는 '연대론'도 부상하고 있다. 또 당원에서도 광주·전남이 전북에 비해 1만여명 더 많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최 의원이 '변화'를 선점하면서 '바람'을 일으키지 않느냐는 기대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당, 영등포 당사 새 현판

사무 기능 국회로... 6개층 → 2개층 규모 축소

자유한국당이 11일 영등포로 새 당사를 옮겼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 합진규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여의도 당사의 현판을 떼내고 영등포동 우성빌딩 당사에 새 현판을 달았다. 김 대행은 현판식에서 "온갖 기득권과 영욕의 세월을 보낸 여의도 당사 시대를 마감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아우르는 서민개혁중심 정당으로 영등포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질한 진정성으로 국민이 부를 때까지 쇠신과 변화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또 그는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까지 혹독한 세월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말부터 여의도 당사를 정리하고 영등포로 집기를 옮겼지만, 아직 새 당사 리모델링은 마무리하지 못

했다. 여의도에서는 6개 층을 사용하며 매월 1억원에 달하는 임차료를 부담해왔지만, 영등포에서는 2개 층만 빌려 규모를 대폭 줄이고, 대부분의 사무 기능은 국회로 옮겨왔다. 한국당이 여의도를 떠나는 것은 2004년 이후 두 번째다. 한나라당 시절인 지난 2002년 16대 대선 패배 이후 '차떼기 파동'을 겪은 한국당은 2004년 여의도 당사를 매각하고 천막당사 생활을 하다 강서구 영창동으로 당사를 옮겼다. 이후 2007년 다시 여의도로 돌아올 때까지 3년여가 걸렸다. 한국당은 여의도 한양빌딩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하는 영광의 시간을 보냈지만, 20대 총선 참패와 탄핵 사태, 지난해 대선 패배 등을 거치며 당세가 기울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분할매매 가능)
- 문의. 010-6834-7400